

INTERVIEW

“우리 손으로 일군 회사…단결로 일류 플랜트 기업 도약”

(주)용호기계기술 박미라 차장



- 조직 내 갈등 원만히 해결하고 업무 능률 향상 기여
- ‘여성파워’ 발휘, 거친 건설 현장에서 소통 문화 주도

여수상공회의소와 여수언론인협회는 2023년 공동 기획으로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중소기업 경영인 및 근로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여수국가산단과 지역경제의 발전 및 상생을 도모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회사의 발전을 위해 묵묵히 자신의 위치에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들의 솔직담백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여수국가산단 (주)용호기계기술 박미라 차장과의 인터뷰 내용을 실습니다.



우리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된 여수상공회의소 선정 2022년 '히든챔피언'에 선정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간단한 수상소감 부탁드립니다.

'히든챔피언'에 추천된 것은 알고 있었지만, 막상 수상하고 보니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곰씹어보니 저 자신에게 주어진 상이 아닌 우리 옹호기계기술 대표님과 임직원을 대표해서 받았다고 생각하니 수상의 기쁨이 배가 된듯합니다. 여성으로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이 상당히 버거웠지만 항상 세심한 배려로 살피주신 정성호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 전합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 드리겠습니다.



챔피언으로 선정된 사유가 궁금합니다.

직무를 수행하면서 다른 부서와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고, 단결력을 높인 공로로 챔피언을 주신 걸로 압니다. 또, 업무 능률향상에 기여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다.



옹호기계기술은 (주)어떤 회사이고, 규모, 실적은 어떠한지? 그리고 회사에서 어떤 역할들 담당하고 있는지?

저희 회사는 지난 1997년 5월 옹호건설로 시작하여 2003년 (주)옹호기계기술로 변경했으며 현재 임직원 150여 명으로 중소기업으로 발전했습니다. 여수 국가산단에서 플랜트 설비 공사, 대정비 작업, 압력용기·열교환기·타워 등을 제작·설치·시공하는 기업입니다. 지난 20여 년간 쌓은 기계설비 기술을 바탕으로 품질 향상을 통해 여수산단 입주업체로부터 인정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각종 전문건설업 면허도 취득하는 등 옹호기계기술만의 노하우를 쌓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EPC(설계·구매·

시공) 분야로 사업영역을 넓혀 석유화학 플랜트 전문 기업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글로벌 핵심기술의 확보와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기술 기반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 최고의 종합 '플랜트 엔지니어링' 설계 능력을 확보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품질관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입사 후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가 있다면?

지금은 당사가 대기환경 EPC 시스템이 정착됐지만, 초반에는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싶었으나 직원들 간에 신뢰를 쌓아가며 서로 배워간다는 자세로 임하다 보니 성공적으로 공사도 미치고 사업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을 때가 기억에 남습니다.





힘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야이며, 풀어내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건설업 특성상 조직 문화가 수직 구조로 돼 있다 보니 상하 직원 간에 소통이 가장 어렵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여성이고 선임 직원이다 보니 때로는 엄마처럼, 친구처럼 징검다리 역할을 하며 현장에서 소통 분위기를 만들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좌우명과 가치관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포부가 있다면?

원효 대사가 한밤에 해골에 담긴 물을 달게 마시고 깨달음을 깨우쳤다는 일화 아시죠? ‘일체유심조’,

‘만사 마음먹기 달렸다’는 말처럼 어떠한 일을 할 때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그 일이 재밌는 일이 되기도 하고 힘든 일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과도한 포부보다는 현재 위치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 정진하겠습니다.



제도와 지역사회가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함께 고민해야 할 점이 있다면?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 사각지대에 소외된 이웃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소외된 지역 이웃들에게 물질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여수산단을 비롯한 지역사회가 꾸준한 관심과 배려를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료들과 지역민들에게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와 고금리, 고물가로 대변되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서민들의 시름이 깊겠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우리에게 힘든 위기를 겪게 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인내했을 때 저 자신에게 가장 빛나는 순간을 안겨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힘내면 희망의 날이 오지 않을까요. 우리 함께 힘내요. 아자아자 화이팅!



INTERVIEW

"회사 발전은 곧 나의 발전"…
지난 10여년 부단한 노력 '결실'

(주)인슐레이션코리아 박승기 차장



여수상공회의소와 여수언론인협회는 2023년 공동 기획으로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중소기업 경영인 및 근로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여수국가산단과 지역경제의 발전 및 상생을 도모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회사의 발전을 위해 묵묵히 자신의 위치에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들의 솔직담백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여수국가산단 (주)인슐레이션코리아 박승기 차장과의 인터뷰 내용을 실습니다.

新 사업영역 자격증 취득해 회사 매출 신장 기여 “관리자로서 책임과 역할 막중… 신뢰는 곧 생명”



우리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된 여수 상공회의소 선정 2022년 '히든 챔피언'에 선정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간단한 수상소감 부탁드립니다.

먼저 히든챔피언에 선정될 수 있도록 여러모로 도와주신 한국바스프 여수공장 이운신 공장장님과 여러 임직원분께 감사 말씀 올립니다. 또한 지난 9년여간 인슐레이션코리아(주)에 몸담게 해주신 승영순 사장님과 여러모로 도와주신 회사 동료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보다 더 능력과 성과 그리고 인간관계가 좋으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수상하게 되어 조금은 부끄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묵묵히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대가를 누군가로부터 인정받았다는 것에는 더할 것 없이 행복합니다. 제 일에 언제나 묵묵히 수행하고 계시는 모든 분이 우리 지역의 힘든 챔피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챔피언으로 선정된 사유가 궁금합니다.

한국바스프 여수공장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새로운 사업 영역인 도장 관련 부분 건설도장, 방수 등 전문 자격증을 취득해 회사의 매출 신장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 기사 자격증을 취득해 획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지난 6년간 한 건의 안전사고가 없도록 현장을 관리한 노력도 좋은 점수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인슐레이션코리아(주)는 어떤 회사이고, 규모, 실적은 어떠한지? 그리고 회사에서 어떤 역할들을 담당하고 있는지?

인슐레이션코리아는 1989년 9월부터 2008년 7월까지 이소 라이트(일본) 한국지사로 입지를 넓혀왔습니다. 이후 인슐레이션코리아(주)로 사명이 바뀌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삼성, GSC, 롯데, LG, 포스코, BASF, YNCC, DL, 금호 등 국내 대기업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중화학단지에서 특화된 내화 단열 기술을 바탕으로 히터 도면 설계부터 시공 및 관리까지 토탈패키지서비스(Total Package Service)를 제공하는 업체로서 여러 국외기업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저희 모든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에너지 세이빙(Energe saving) 종합 건설 업체입니다. 본사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두고 있으며, 남부지사(여수) 와 서부지사(대전)를 전초 기지로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부지사(울산)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연 매출은 400~500억 수준으로 매 연간 지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승영순 사장님을 비롯해 63명의 사무·관리직 직원과 현장 일선에서 시공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현장 근로자 100여 명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바스프 여수 공장에서 지난 7년 동안 안전사고 ‘제로’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입사 후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가 있다면?

2014년 8월 20일 입사 후 4년마다 한 번씩 하는 TA(TURN AROUND) 대정비 사업을 그해 9월부터 12월까지 대림산업 여수공장에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경험 부족으로 많은 실수도 하고, 상급자로부터 꾸지람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지난 추억을 떠올리면 그때 쌓은 경험과 배움이 지금 제가 존재하는 원동력과 초석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3개월간의 TA를 끝낸 뒤 150여 명의 근로자와 회사로 복귀했을 때가 가장 보람되었던 것 같습니다.



힘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야이며, 풀어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현장에서의 책임자의 역할이란 보는 시각과 상황에 따라 쉽고, 어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주변에 참 좋은 여러 선배가 있어 많은 도움과 조언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만 들자면, 일상적인 일들이 내겐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현장에선 항상 여러 가지 돌발 상황이 벌어지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제공하기란 지금도 어려운 숙제입니다. 사소한 것들이 모여 저 자신과 나아가 회사를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매일 조회 시간이나 중간, 최종 점검 시간마다 현장을 꼼꼼히 체크하고, 만일의 사태에 늘 대비하는 마음가짐을 하고 있습니다.



좌우명과 가치관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포부가 있다면?

‘내가 뱉은 말은 사소한 것이라도 지키자’입니다. 지난 삶을 돌이켜 보니 제가 한 말을 지키지 못한 적도 많았고, 실행하지 못해 타인들로부터 입살에 오른 적도 있었습니다. 한때는 사업도 크게 실패해 쓴 맛도 보았습니다. 세월이 지나 제가 한 말과 행동들을 곱씹어보니 저 자신과 남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인간관계가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인간관계는 말과 행동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타인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도나 지역사회가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함께 고민해야 할 점이 있다면?

우리나라의 노동 현장의 현실은 안전 면에서 과거에 비해 상당히 개선됐지만, 여전히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동 현장에 새롭게 입문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경험이 부족하고,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접하지 못해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현장에서 벌어지는 안전사고는 초심자분들의 경험 부족과 부주의, 관리 부족으로 해마다 수많은 생명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행정당국에서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직간접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건설노조나 기업들의 협조를 통해 직종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동료들과 지역민들에게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가정을 위해 수많은 노동자가 치열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각박한 삶이지만 여유와 인내를 갖고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분명 더욱 많은 기회가 찾아 오리라 생각합니다. 힘든 삶도, 힘들지 않은 삶도 한 번뿐인 삶입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오늘 흘린 땀과 노력이 훗날 큰 결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